

정읍시 정책실명제 사업 70건 선정

정읍천 핫플·치유의 숲 조성 등 결정·집행 과정 관련자 기록·관리 결과 시민에 공개...신뢰성 강화

정읍시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했다. 정읍시는 최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개최, 총 70건의 대상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및 의견을 기록·관리해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읍시가 지난 14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읍시 제공>

이번에 선정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시민이 직접 신청한 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들 사업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 선정·관리된다. 위원회에서는 시의 다양한 현안 사항을 심의해 신

규 25건과 계속 45건, 총 70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선정사업으로는 ▲정읍천 핫플레이스(벽천분수) 조성사업 ▲치유의 숲 조성 ▲농촌유학 가족체험형 거주시설 조성 ▲서남권 소외외래진료센터 설치사업 등이 포함됐다. 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과 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업의 추진상황 역시 매 분기 업데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다. 또 시민이 정책실명제대상사업 선정에 요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 창구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송금현 정읍시 부시장은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광한서로' 보행자 중심 도로 만든다

도비 10억원 확보...2026년까지 공설시장 연계 등 '특색있는 거리'

남원시가 전북자치도 주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보행환경 개선지구)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시는 확보된 도비 10억원에 10억원의 시비를 더해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구간은 '광한서로'로 이 곳은 춘향제와 월광포차 등 각종 행사 및 축제의 주 무대다. 시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특색있는 거리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지난 5월 전북자치도 공모사업을 신청, 이 같은 성과를 냈다.

공모사업과 별개로 신속하고 속도감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는 추경에 실시계획 용역비 1억원을 우선 편성하고 2025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목표로 설계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광한서로와 함께 광한루원에서 공설시장으로 가는 '고샘길' 노선도 사업 내용에 함께 포함돼 있어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공설시장을 방문하는 동선을 연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광한루원과 주변 경외상가, 남원다육관, 공설시장 등이 연계된 보행자 중심의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고 활기찬 남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남원 시민도에대학, 중국과 도예문화 교류

상위도자연연구원과 업무협약...작가·도자산업 진출 등 협력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중국 경덕진도자대학 상위도자고등연구원에서 열린 '2024 아시아 청자문화 컨퍼런스'에 초청자격으로 참가한 남원시민도에대학 관계자가 상위도자고등연구원과 도예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민도에대학이 중국 상위도자고등연구원과 도예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는 시가 운영 중인 남원시민도에대학이 '2024 아시아 청자문화 컨퍼런스' 아시아 도예문화 교류 국제행사에 초청돼 중국 경덕진도자대학 상위도자고등연구원과 도예문화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도자문화사업에 관한 업무협력, 작가 교류 지원, 도자산업의 시장진출, 다른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발전 등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이 이뤄진 행사는 중국 저장성 사오싱시 상위구가 주최하고 경덕진도자대학 상위도자고등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7일간 열렸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초청된 도예작가와 관계자들이 초청돼 청자제작 기법 워크숍과 국제 전시 등이 펼쳐졌다.

특히 남원시 대표로 초청된 양관식 도예작가는 워크숍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해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 재료의 기법을 탐구하고 현대적 조형성을 선보여 아시아 도예가들의 호응을 얻었다. 남원시는 한·중·일 도 문화 교류의 교두보로써 교류를 확고히 하고 한파우타벨리 내 건립 예정인 도자전시관 건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도자문화 교류의 실질적 협력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양 기관의 도자산업과 도예인재 양성에 시너지효과가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상위도자고등연구원은 경덕진도자대학 직영기관으로 국제 시스템을 갖춘 창작스튜디오 운영과 도자산업 인력양성, 도자기 기법·재료 연구, 전시와 판매시설 국제 도자문화 교류 추진 등 도자기 전문 연구기관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문수사 대응전'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

조선 전기 이후 양식 등 보존 역사·학술·건축학적 가치 인정

고창 문수사 대응전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승격됐다. 고창군은 지난 16일 고창 문수사에서 '고창 문수사 대응전'의 보물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 경우 주지스님, 내장사, 내소사, 개암사 주지스님, 중앙종무원 10여명의 스님들과 불교 신도들이 함께 해 '고창 문수사 대응전' 보물 승격을 축하했다. 고창 문수사 대응전은 조선 전기이후의 양식과 전라도의 지역적 특색인 단순하면서도 강직한 공포의 형태와 짜임은 1653년(효종 4) 중창 당시의 형태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학술적·건축학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소중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심덕섭(오른쪽) 고창군수가 지난 16일 문수사를 방문해 태효) 스님에게 보물지정서를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정읍 축산농 31곳 화재 안전시스템 구축

자동소화장치 등 지원

정읍시가 축사 화재 예방하고 대형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축사 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올해 도비 등을 포함해 총 1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와 곤충사육업 신고농가 등 총 31곳에 자동화재소화설비, 아크차단기 또는 자동소화장치 중 한 품목을 지원할 예정이다. 축사 화재 안전시스템은 전기과열, 과부하 등 주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축사 내 전원, 온도 등 주요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각 농가는 최대 400만원의 설치비 중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9월까지 31 농가 지원을 완료해 축사 화재로 인한 대형 재산 피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축산업의 안정적인 사육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